

다. 司饗院이 監造한 沙器 그릇은 우선 長興庫에 納庫한 후 宮中各殿의 常用과 儀禮時에 必要한 量이 出給되었는데 司饗院은 이러한 高級沙器를 굵기 爲하여 「每歲司饗院官率畫員監造御用之器」(東國輿地勝覽 京畿道 廣州土產條)했던 것이다. 이러한 記錄으로써 보면 李朝時代의 靑華鐵砂 辰砂 等 畫沙器에 나타난 非凡한 그림은 當時의 圖畫署 畫員의 作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고 陶磁器 裝飾畫에 이러한 畫家들이 動員될 수 있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司饗院의 威光에 緣由하는 것이었다.

二

언제부터였는지 자세한 기록은 남아 있는 것이 없지만 中宗朝의 朴祥의 文集속에 分院이란 語句가 보이는 것이 있고 古來로 京畿道 廣州郡의 古寨를 分院가 마라고 불려오게 되었는데 이 分院이란 말은 두말할 것도 없이 司饗院의 分院이란 뜻이며 이것은 後의 기록에 나오는 分院、分厨院(俗稱)이란 이름으로 制度化되어 그 職制와 定員의 全貌가 밝혀져 있다. 어쨌든 이 司饗院이라는 宮中官署는 그 本來의 使命인 宮中の 厨房을 擔當했던 機關으로서 보다 李朝陶藝의 進運에 크게 寄與한 功績으로써 보다 더 社會的인 聲名이 높아진 것이 事實이다.

三

이번 서울 金文基氏의 好意로 그 분이 所藏한 成化三年在銘 司饗院印을 調査하게 된 것은 望外의 기쁨이었으며 이러한 意味로 이것은 同學들이나 愛陶家들에게 매우 솔깃한 소식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 銅印은 一邊이 約七·二cm로 된 모 죽임을 한 方角形이며 全高는 六·三cm 印身의 두께는 一·三cm — 一·一cm 鈕의 높이는 四·八cm 鈕의 넓이는 鈕底에서 三·三cm 鈕의 두께는 一·一cm 內外로 되어 있고 이 鈕는 印身위에 二mm 높이를 들우어진 方角鈕座위에 印行에 따라 세로 直立되어 있다(이 鈕는 上端에서 一cm의 部位에서 鐵톱으로 斷切되어 있는

데 이것은 原發見者가 金인가를 알기 爲해서 故意로 잘랐다 한다)。印面에는 大篆으로 司饗院印의 四字를 陽鑄했으며 鈕座左右변두리에는 세로 陰刻된 다음과 같은 銘文이 있다. 즉 右側에는 「司饗院印」左側에는 「成化三年 四月 日造」라 되어 있다. 이 成化三年 四月은 바로 世祖實錄卷四二世祖十三年四月己亥條에 나오는 「改司饗院始置祿官」이란 대목에 該當하는 날짜로부터 司饗房이라 부르던 것을 司饗院으로 改稱함에 따라 이 銅印은 그때 새로 鑄造했음을 밝혀주고 있다. 다만 이 銅印은 當初 發見者의 손에서 轉轉해서 現所藏者에게 入手된 것이었음으로 그 出土地를 밝힐 수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司饗房이란 이름이 實錄에 비로소 보이는 곳은 太宗實錄 卷九 太宗五年 乙酉三月 禮曹詳定分職條속에 나타나 있다.

楊平 婆娑山 磨崖如來立像

鄭 永 鎬

京畿道 楊平郡 介軍面 上柴浦里 「새터」마을에서 東南쪽으로 約二km되는 岫岳은 山周圍에 石城이 보이며 이 산이 婆娑山이고 여기에 쌓은 城을 婆娑城이라 稱한다. 婆娑城에 對하여는 이미 調査되어 報告書가 있고 또 다른 記錄도 있으나(註) 바로 隣接한 이 佛像에 關하여는 전혀 알려진 바 없기에 簡單히 紹介하려 한다.

「새터」마을에서 約一·五km 婆娑山의 北麓溪流를 따라 올라가면 左側으로 婆娑山보다 낮은 山이 있고 山峰가까이 巨大한 岩壁이 屏風처럼 둘러 있어서 마을사람들은 병풍바위라고 일컫고 있는데 佛像은 南壁面中央에 位置하였다. 浮彫가 아니고 線刻이며 下部磨損 때문에 完形을 볼 수 없음을 遺憾된 일이다. 如來像으로 素髮의 頭頂에는 큼직한 肉髻가 있고 白毫孔은 없다. 兩眉와 眼耳 鼻樑等 整齊되고 口唇에 若干의 微笑가 어려서 圓滿한 相好에 慈悲가 흐른다. 法衣는 右肩偏袒으로 兩脚에서

圓弧를 그리며 양 옆으로 펼쳐졌는데 衣端은 直線으로 잘려졌고 그 밑에 單葉의 伏蓮座를 새겨 놓았다. 手印은 右手를 臍前에 들고 左手는 胸前으로 올린 듯하다. 光背는 頭光만을 表示하였는데 二重圓光으로 頭部周圍이나 圓光周緣 或은 內·外光間地 等 各部에는 아무런 彫飾이 없다. 豐滿한 相好나 堂堂한 肩部 等의 彫刻手法로 보아 新羅代의 佛像樣式을 잘 踏襲한 高麗中期以前의 優作으로 推定된다. 實測值(cm)는

總高 五五〇 頭光內徑 一七〇 肩幅 一三〇
頭光外徑 二七〇 胸幅 七五이다.

傳聞한 바에 依하면 北麓平坦地域이 寺址라는 바 日帝時 銅鐘이 出土되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近處에서 靑瓷片이나 瓦片을 多數蒐集할 수 있다. 佛像의 바로 밑 南쪽 山中腹에 約五十坪의 臺地가 마련되고 自然礫石이 묻혀 있는 點으로 보아 庵子址로 생각된다. 여기서 西南쪽을 내려다보면 南漢江이 구비쳐 흐르고 驪州行路邊 部落이 眼下에 展開되며 婆娑城이 南쪽에 바라 보이는 佳景임을 느낄 수 있다. 楊平에서 一〇km 卽 卽便으로 介軍에서 下車하여 徒步로 約一時間, 一日 踏査코—쓰로 卽 좋은 곳이라 하겠다.

(註) 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書 驪州郡章에 婆娑城의 調査內容이 있고, 또 朝鮮 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도 五四頁 驪州郡項에 記錄이 보이니 바로 隣接한 이 佛像에 對하여는 全히 紹介가 없다.

이 곳은 本時 驪州郡管轄이었으나 近年行政區域改編으로 楊州郡이 되었다.

全羅北道 海岸一帶의 先史遺蹟 (二)

崔 夢 龍

(b) 山內面 大項里 조개미貝塚

이 貝塚은 邊山半島 北半部에 位置하고 있는 山內面 大項里 蛤九味(地方名)로는 조개미)에 所在하고 있으며 標高一四四m인 石門을 背景으로 하고 西海의 바닷물이 들어오는 幅約一五m程度되는 조그만 浦口

와 併行하여 있는 朴長春氏 所有 보리밭의 東側이 一〇餘m쯤 干潮에의 해 流失되어 自然露出되어 있다(圖1 및 寫眞 參照). 現在 이 貝塚의 範圍는 南北約一四m, 東西의 幅은 約一〇m쯤 되며, 地表에 露出되어 있는 岩盤의 上部까지는 一·二七m이며 貝殼層은 五三cm—六五cm나 되는 비교적 規模가 큰 貝塚이라고 쉽게 斟酌할 수 있는 것이다(圖2 參照).

이번 調査時 岩斷崖部의 崩壞를 憂慮한 나머지 試掘坑도 掘어 보지 못하였지만 僅은 腐蝕表土層 밑에 보인 純貝殼層에서 表面採集한 打製石器 五點, 櫛文土器系統의 土器片 二點과 三國時代로 推定되는 陶器片 二點이 이 遺蹟에서 發見할 수 있었던 遺物全部였다.

(A) 櫛文土器

櫛文土器系統의 土器片은 口緣部와 胴部 二點뿐이며 前記 두點 모두 異質의 破片이다.

두點 모두 胎土는 결이 고운 砂質 흙으로 되어 있으며 雲母가 비교적 많이 含有되어 西海岸地區의 典型的인 櫛文土器의 胎土와 相通하고 있다.

口緣部片은 內外壁 모두 明褐色의 色調를 띄우고 있으며 器壁의 두께는 〇·八cm이다.

또한 器壁의 두께가 〇·八cm인 胴部片의 外壁은 不完全한 燃燒로 因해 黑色을 띄우고 있는 反面에 內部는 비교적 밝은 明褐色의 色調를 띄우고 있다.

그러나 이 두片의 土器片이 櫛文土器系統이나 또 無文土器系統인가 하는 問題는 將次的 發掘을 通해서만 決定될 수 있는 性質의 것이며 現在로선 確하고 斷定할 수 없다.

다만 여기서 胎土의 質이 櫛文土器式이며 口緣部의 모습이 平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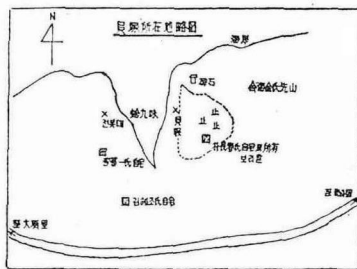


圖 1